

눈은 내리는데

눈이 하염없이 내린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하얀 화산지 위의 수목화처럼 몇가닥 선으로 이어졌다 끊어지길 반복한다. 이번 겨울은 얼마나 더 눈이 내리려나.. 또 얼마나 더 추우려나.. 엇그제게도 오후부터 폭설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로 오전에 약속된 손님만 만나고 12 시도 못되서 사무실을 서둘러 나왔다. 집까지는 45 분정도 거리니 한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려니 생각하고 운전을 했다. 역세게 뿌려대는 눈발은 거칠줄을 모르고 영하 10 도 이하의 강추위로 길은 온통 빙판길이다. 모두들 서둘러 오전근무만 했는지 차량들이 도로 위로 쏟아진다. 로컬길들에 차량행렬이 줄을 지어 있기에 동선을 바꾸어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모든 차들이 기어서 간다. 곳곳에 사고가 나고 고속도로 길가에 세워진 차들은 눈으로 하얗게 덮혀 있어 차량 형체도 분간이 되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6 시가 넘었다. 운전시간만 6 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서울~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운전한 셈이다. 나는 그래도 음악을 들으며 난방이 잘 되는 차 안에 앉아 편안하게 왔지만, 이 냉동설한에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어 울상인 우리 이웃들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하다. 또 얼마전에는 남극 추위보다 더 체감온도가 낮다는 혹한의 날도 있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인데, 눈내리고 온통 빙판길인 혹한 날씨에는 손님들 발길마저 뚝 끊어지니 서민들 삶이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닐텐데.. 빨리 날씨라도 풀려야 할텐데.. 이런 저런 걱정이다.

IMF 로 한국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 할 때 서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책 한권이 생각난다. 이철환씨의 <연탄길>이다. 이철환씨는 노량진 입사학원에서 서민층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4 년동안 그들로 부터 들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 단편들을 7 년에 걸쳐 쓴 것이다. 각 단편마다 서민들의 애환과 눈물이 마치 서사시처럼, 한편의 드라마 처럼 펼쳐진다. 각 사연마다 아픔 아닌 것이 없고 각 단편마다 그 고통들을 이겨내는 반전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한다. 장애인, 노숙인, 청소부, 결혼가정 아이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 산동네 사람들, 술주정뱅이 아버지, 시장 바닥의 어머니..등등

흔히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픈 사회 빈민층, 저소득자들, 사회 소외자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사랑이야기다.

작가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의 전부라도 태워, / 님의 시린 손 녹여 줄 따스한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 그리움으로 충혈된 눈 파랗게 비비며, / 님의 추운 겨울을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함박눈 펄펄 내리는 날, / 님께서 걸어가실 / 가파른 길 위에 누워 / 눈보다 더 하얀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연탄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어린 시절 내가 사는 산동네에 수북이 눈이 쌓이면 사람들은 저마다 연탄재를 손에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보다 더 하얗게 사랑을 깔아 놓았습니다. 가난으로 움츠린 산동네 사람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아침을 걸어 내려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빛이 될 순 없지만 더 짙은 어둠이 되어 다른 이들을 빛내준 사람들의 이야기,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넉넉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라는 문구가 더욱 가슴을 저민다.

단편 중에 고아인 자매 3 명이 짜장면 한그릇만 주문하는 것을 음식점 여주인이 보고 마치 죽은 엄마 친구인 것 처럼 하면서 아이들에게 짜장면 세그릇과 탕수육을 공짜로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본 소설에도 이런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다.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다 과로로 죽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왼쪽다리를 절단하여 걸식을 한다. 어린 자매 3 명은 수녀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간다. “한겨울 도시의 담벼락에 화사한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등지고 서 있는 이름없는 꽃 한송이가 있습니다. 친구 엄마는 하루를 살기 위해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떡을 팔았습니다. 왜 그들에겐 코뿔소의 뿔이 없을까요. 왜 그들에겐 바람 한줄기 치받을 수 있는 염소의 뿔조차 없을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스스로는 어떻게 해 볼 수조차 없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작가의 글을 빌리면 “아이를 업은 여인이 지하도 계단에 엎드려 한겨울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이들 앞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해 버린 죄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시간이...”

이런 글들을 읽다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된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장애인과 병든 자들이, 우리의 도움이 간절한 고아와 가난한 노인들이 몇명이나 있을까. 아니 과연 이들이 마음 편히 우리와 같이 예배라도 볼 수 있을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닐까.. 가진 자는 가진자 끼리, 배운 자는 배운 자끼리 모이는 교회라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우리를 내려다 보시며 무엇이라고 하실까. 오늘도 눈은 내리는데 이 눈속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고 있는 <극히 작은 자>들이 자꾸 자꾸 마음에 걸린다...